

06 2027학년도 학과·계열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취업이 보장되나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무엇을 확인하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948명 · 10개 대학 — **뉴스보다 훨씬 작은 자리**입니다
-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 고등학생이 쓰는 것은 하나뿐
- ◆ 「보장」에 붙는 조건 다섯 — 학점·어학·인턴·**의무 재직**·**학비 반환**
- ◆ **협약서까지 확인하는 법** · 물어볼 여덟 가지

01 · 숫자부터

생각보다 작은 자리입니다

「계약학과 가면 취업이 보장된다면서요.」

절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틀린 쪽에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무엇이 보장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가르겠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계약학과·채용조건형으로 표시된 자리를 세었습니다.

무엇	얼마나
계약학과·채용조건 줄	49줄
모집 인원	948명
이런 자리를 둔 대학	10곳
경쟁률 중앙값	12.8:1

948명입니다. 수시 전체(6,482줄)에 견주면 매우 작은 자리입니다. 뉴스에는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적습니다.

그러니 계약학과를 목표로 3년을 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고 맞으면 한 장 쓰는 자리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서 학과·전형 이름에 「계약학과·채용조건·채용연계」가 든 자리를 저희가 집계. 표기 방식이 대학마다 달라 실제 수는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계약학과」라고 부르지만 **제도상 두 갈래**입니다. 이걸 가르는 것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갈래	누가 돈을 내나	취업은
채용조건형	기업이 학비를 냅니다	채용이 전제입니다 — 조건을 채우면
재교육형	이미 일하는 사람이 다닙니다	해당 없음 — 고졸 신입 지원 자리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지원하는 것은 **채용조건형**입니다. 재교육형은 **재직자가 다니는 과정**이라 결이 다릅니다. 요강에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장」에 붙는 조건들

채용조건형이라도 **졸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	어떻게
학점	일정 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학·자격	기준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턴·과정	정해진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의무 재직	입사 뒤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이 붙습니다
학비 반환	조건을 못 채우면 지원받은 학비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랫줄을 특히 보십시오. 기업이 학비를 대 주는 구조라 **중간에 그만두면 돌려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요강이 아니라 협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계약학과 조항 및 각 대학 학과 안내. 조건은 **대학·기업마다** 다릅니다.

03 · 무엇을 확인하나

협약서까지 보십시오

Q. 하나 — 어느 기업인가, 그 기업이 어떤가

4년 뒤에 그 기업에 갑니다. 그러니 그 기업이 어떤 곳인지가 학교 이름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실 것은 업종·규모·근무지입니다. 특히 근무지는 잘 안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 4년 뒤에 어디서 살게 되는지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Q. 둘 — 무엇이 「보장」인가

「채용 보장」과 「채용 우대」와 「인턴 기회」는 전혀 다릅니다. 홍보물에는 다 좋게 적혀 있으니 **협약 내용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물으실 말은 이렇습니다 — 「졸업생 가운데 실제로 몇 %가 그 기업에 입사했습니까?」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면 믿을 만하고, 「대부분」·「거의」로 답하면 한 번 더 물어셔야 합니다.

Q. 셋 —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가장 안 물어보는 질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학점을 못 채우면? 어학 기준을 못 넘기면? 마음이 바뀌어 다른 데 가고 싶으면? **학비를 물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럴 일 없겠지」로 넘기지 마십시오. 4년은 길고, 18살에 정한 진로가 22살에 그대로인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Q. 넷 — 그만두면 학교는 다닐 수 있나

계약을 벗어나도 **학점은 유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그 **학과에 남는지 다른 과로 가는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이 끊기면 학비를 스스로**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아셔야 합니다.

확인 항목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협약 조건은 대학·기업·연도마다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물을 것	답에 따라
1	채용조건형인가 재교육형인가	재교육형이면 지원 자리가 아닙니다
2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가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3	보장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	숫자로 답을 받으십시오
4	못 채웠을 때 무엇을 무는가	학비 반환 조항을 보십시오
5	의무 재직이 몇 년인가	그 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학과는 학과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첫 직장을 고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18살에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계약학과에 원서를 넣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채용조건형 인지 요강에서 확인했는가
- ☐ 협약 기업이 어디 인지 아는가
- ☐ 그 기업의 근무지 가 어디인가
- ☐ 「보장」의 실제 내용 을 확인했는가
- ☐ 지난 졸업생의 실제 입사 비율 을 물어보았는가
- ☐ 유지해야 할 학점·어학 기준 이 무엇인가
- ☐ 못 채우면 학비를 물어야 하는가
- ☐ 의무 재직 기간이 몇 년인가

일곱째와 여덟째는 협약서를 봐야 나옵니다. 학과 사무실이나 입학처에 「협약 조건을 볼 수 있나요」라고 물으십시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학과를 「안전한 선택」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취업이 걸려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안심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일찍 정하는 선택입니다. 일찍 정하면 바꿀 때 치르는 값이 큼니다 — 학비 반환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매우 좋은 자리이고, 그게 아니면 좁은 자리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계약학과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학비를 안 내니까 이득 아닌가요?

돈으로만 보면 이득입니다. 4년 등록금이 큰 돈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무엇을 주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개는 졸업 뒤 일정 기간의 근무입니다. 그 기간에 다른 기회를 못 잡는 것이 실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에 가고 싶어지거나,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오거나, 전공을 바꾸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산은 이렇게 하십시오 — 「등록금만큼의 값을 그 기간의 자유와 바꿀 만한가.」 집안 사정에 따라 답이 다르고,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Q. 경쟁률이 낮던데 노력할 만한가요?

경쟁률만 보고 고르시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계약학과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본 학생이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의무 재직이나 학비 반환 조항을 보고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은 경쟁률이 「덜 알려져서」가 아니라 「알아보고 안 쓴 사람이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썼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앞의 여덟 가지를 다 확인하시고도 여전히 가고 싶다면, 그때는 낮은 경쟁률이 진짜 기회입니다. 확인 없이 낮은 경쟁률만 보고 쓰는 것이 위험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계약학과는 학과가 아니라 첫 직장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협약서를 보고 정하십시오. 홍보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관계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집계는 이름으로 센 것이라 실제 자리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협약 조건은 대학·기업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대학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이나 취업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